

##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접수 3개월 만에 1,000여 명 신청
- 7월 1일부터 장려금 요건 완화 및 제출 서류 간소화하여 사용 편의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 최대 1년)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 1,734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므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에게 근로자 776명분, 총 6억 7,300만원이 지급되었다. 특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체 예산은 275억원(목표 지원인원 12,977명), 이 중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31억원(목표 지원인원 1,734명)

실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도입 노력과 함께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 업무 몰입도 향상, 조직 분위기 개선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재직 중인 기 씨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되었고, 아침밥도 챙긴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 「(유)개벽종합건설」의 이영섭 대표는 “제도 도입 전에는 1시간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도입 후에는 우려와는 달리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다”라며 기업 분위기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근속 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을 제출 하도록 하였으나,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요건	개선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
취업규칙 등에 규정 마련 및 제출 의무	권고사항으로 변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개요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팀 장	이상전 (044-202-7962)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044-202-7473)
		담당자	주무관	김지혜 (044-202-7505)

□ 도입 배경

-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의 신청, ②1일 1시간 단축 허용(1개월이상), ③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④출·퇴근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⑤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 (지원금액) 노동자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지원규모)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

- ('26년 예산) 31억원, 목표 지원인원 1,734명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일반 유형+육아기 10시 출근) 합산 전체 예산은 275억, 목표인원 12,977명

□ 제도 개편 사항('26.7.1.~)

- (요건 완화) 노동자의 6개월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근속 요건 폐지),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서류 간소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규정 마련 및 제출 의무를 권고로 완화